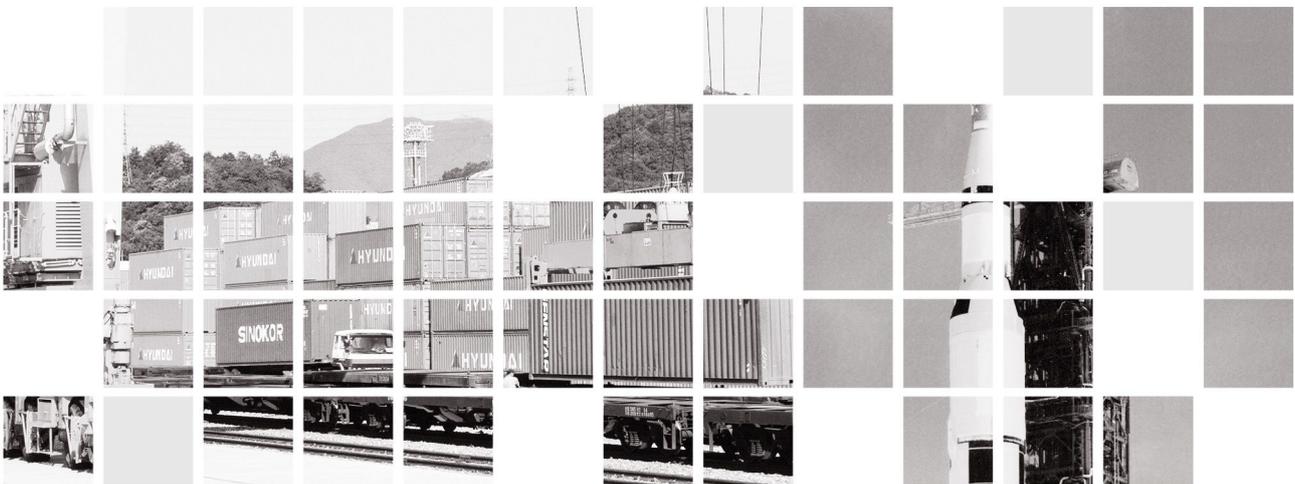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HRI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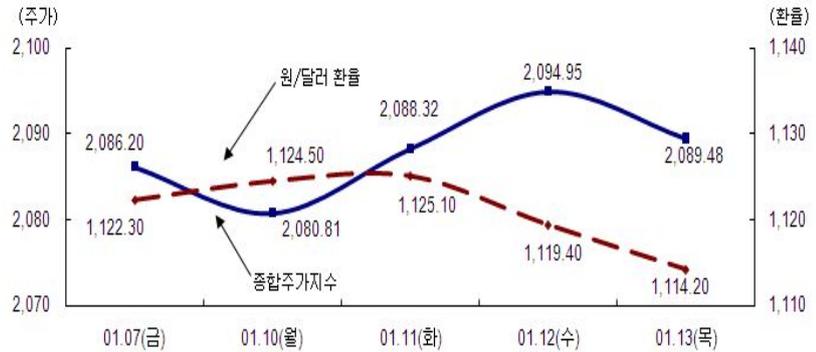


2011 국내 11대 트렌드

1. 국내 경기 3高 4低
2. 부동산 시장, 小强大弱
3. 금융위기 트라우마 지속
4. 서비스 경쟁력의 신기원
5. 供進化에 따른 신산업 출현
6. Green Industry의 신주력산업화
7.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의 반격
8. 히든 챔피언 부상
9.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
10. 한반도 新열강시대
11. 스마트세대의 스마트화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01.7~01.1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1 국내 11대 트렌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임 희 정 연구 위원 외 (2072-6218, limhj9@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1 국내 11대 트렌드

■ 2011년에는 거시, 미시산업, 기업·경영, 정치사회 분야에서 11가지의 특징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거시경제

① **국내 경기 3高 4低** 2011년 국내 경기 흐름에서 3高는 원화 가치, 물가 수준, 주식 시장 등 상대적으로 개선 정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다. 반면 4低는 소비, 고용, 설비투자, 부동산 시장으로 개선 정도가 약하거나 낮은 수준을 머물 것이다. 국내 경제는 4%대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부문별로는 개선 정도가 높은(高) 지표와 낮은(低) 지표가 혼재되어 경기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부동산 시장, 小强大弱**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급등 속에 지역별로 상승과 부진 추세가 엇갈리다가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침체 추세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하락 추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지방의 소형아파트는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고 거래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小强大弱 트렌드에 맞춰진 부동산대책이 요구된다.

③ **금융위기 트라우마 지속** 빠른 국내 경제 회복 기조와 더불어 금융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금융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취약했던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간 환율전쟁의 지속,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국내 경제의 호조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고, 물가 급등 등으로 인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금리 상승으로 연결되어 변동폭을 키우면서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 한편, 외국인투자자금의 단기 유출입 확대에 의한 쏠림현상 등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자본 유출입 규제 강화, 바젤 III 채택, 대형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체계 도입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 미시산업

④ **서비스 경쟁력의 신기원** 한·미 및 한·EU FTA 발효에 따르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으로 2011년은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디자인, 컨설팅, 광고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가 도약하고, 의료, 관광, 문화콘텐츠 등 수출 서비스 산업이 부상하며, 기업의 서비스이징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⑤ **供進化에 따른 신산업 출현** IT기술의 확산 및 융합이 고도화되면서 4T(IT, BT, NT, CT)산업과 연계된 신산업이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IPTV, 테블릿 PC 등의 출현으로 IT기술 역량이 강화되고 IT기술 융합은 지속될 것이다. 2011년 IT산업 예산이 전년대비 11.3% 증가하고 주요 IT 융합 관련 대기업의 신성장 업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U-Health, 녹색성장기반의 확산 및 스마트 슈프트화 등에 따라 4T(IT, BT, NT, CT)관련 신산업의 출현이 기대된다.

⑥ **Green Industry의 신주력산업화.** 그린산업이 세계 각국의 미래 성장 확충과 지속가능한 경제 체질로 재편하는 디딤돌로 간주되면서, 2011년에는 글로벌적인 시장 형성과 투자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 선점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은 경쟁업체보다 앞선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에 주력할 것이 요청된다.

■ 기업·경영

⑦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의 반격.**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선진국 경쟁 기업들의 반격으로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어려움이 전망된다. 첫째,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전자 업계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들 기업들은 그동안 신기술, 환경, 융합 등의 트렌드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아 향후 관련 제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나아가 주요국 정부들이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최근 부상하고 있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⑧ **히든 챔피언 부상.**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히든 챔피언(세계적 중견 기업)으로 부상하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잠재력 높은 300개 중견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World-Class 300' 프로젝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기업도 중견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동반 성장전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⑨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 연결대상기업(계열사)까지 포함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기존과 외형, 재무구조 등에 차이가 발생하며 기준 적용에 대한 해당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된다. 기업에게는 연결대상기업까지 확대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관리를 행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IFRS 경영'이 요청된다.

■ 정치사회

⑩ **한반도 新열강시대.** 2011년에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북핵 문제의 교착 및 미중간의 갈등 심화 등으로 한반도 新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선군 노선과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는 반면, 한·미·일은 북한의 선제적 핵포기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6자회담은 교착 상태를 지속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 해결 지연과 남북경협 위축을 북중경협 강화를 통해 해소할 것으로 보여 대중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⑪ **스마트세대의 스마트화.** 새로운 스마트세대가 등장하고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2011년은 스마트세대에 의한 스마트화가 각 분야에서 활발해질 것이다.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스마트한 모바일 기기들이 넘쳐나면서 스마트세대의 스마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스마트 생활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일상화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세대가 기업으로 진입하면서 이들에 의한 기업문화의 스마트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I. 11대 트렌드 선정

- 2011년에 국내 거시경제, 미시산업, 기업·경영, 정치사회 분야에서 예상되는 각종 분석 자료를 종합하여 특징적으로 나타날 11대 트렌드를 선정함
- 2011년 거시경제 부문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는 ‘국내 경기 3高 4低’, ‘부동산 시장, 小强大弱’ ‘금융위기 트라우마 지속’의 3개가 선정됨
 - 미시산업 부문에서는 ‘서비스 경쟁력의 신기원’, ‘供進化에 따른 신산업 출현’, ‘Green Industry의 신주력 산업화’, 의 3개 트렌드가 예상됨
 - 기업·경영 부문에서는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의 반격’, ‘히든 챔피언 부상’,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의 3개 트렌드가 예상됨
 - 정치사회 부문에서는 ‘한반도 新열강시대’와 ‘스마트세대의 스마트화’가 트렌드로 예상됨

< 2011년 국내 11대 트렌드 >

분야	트렌드 내용
거시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기 3高 4低 - 부동산 시장, 小强大弱 - 금융위기 트라우마 지속
미시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경쟁력의 신기원 - 供進化에 따른 신산업 출현 - Green Industry의 신주력 산업화
기업·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의 반격 - 히든 챔피언 부상 -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
정치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新열강시대 - 스마트세대의 스마트화

II. 국내 11대 트렌드

1. 국내 경기 3高 4低

○ (의미) 2011년 한국 경제는 수출 수요 증가, 민간부문 성장 기여도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불안 요인 등이 잠재하고 국내 경제 부문별 성장 속도에도 온도차가 존재

- 국내 경제 부문 중 원화 가치, 물가 수준, 주식 시장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 정도가 강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
- 반면 소비, 고용, 설비투자, 부동산 시장은 개선 정도가 약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임

○ (내용) 4%대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부문별로는 원화 가치, 물가, 주가 등 높은(高) 지표와 소비, 고용, 설비투자,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 낮은(低) 지표가 혼재되어 경기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① 3가지 높은(高) 지표

- 원화 가치 상승 : 원화 가치 상승세는 2011년까지 이어질 것임
 - 2010년 : 경상수지 폭 확대, 차이나 머니의 국고채 매수 등으로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세 지속
 - 2011년 :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내 경제 안정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금리인상 등으로 원화 가치 상승세는 지속될 것임
- 물가 상승세 지속 : 2011년에 수요와 공급 양쪽의 압력 증대로 대표적인 물가 지수인 소비자물가는 2010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2010년 : 소비자물가는 9월과 10월 급등세에서 11월 3% 초반으로 안정세
 - 2011년 :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른 총수요 압력 증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의 압력 증대로 3% 중반의 수준을 기록 전망
- 주식가격 추가 상승 : 2011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 개선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추가 상승 전망
 - 2010년 :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외국인 자금유입 증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
 - 2011년 : 연평도 사건 등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 재정위기 지속 우려, 중국 긴축 재정 확대 등은 불안 요인으로 잠재

② 4가지 낮은(低) 지표

- 소비 둔화세 :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자산 여건 개선 미흡 등으로 민간소비는 2011년에 연간 3%대 후반에 머물 것임
 - 2010년 : 경기회복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빠른 회복세 실현
 - 2011년 : 교역조건 악화,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증가 등 가계부채 부실화 가계부채 부실화 등으로 인해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임

- 고용 여건 개선 미흡 : 4% 초반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됨에 따라 취업자 증가, 고용 증가, 실업률 하락 등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미흡
 - 2010년 : 민간부문 취업자 증가세 지속 등으로 고용률 증가, 실업률 안정세
 - 2011년 : 고용여건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 정부 전망¹⁾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수는 28만 명 내외 증가가 예상되나 위기이전 추세에 비해 아직 일자리가 30~40만 개 내외가 부족한 상황임.

- 설비투자 회복 미약 : 수출증가세 지속, 민간투자 기대 증가로 위기 이전 평균 수준보다 높은 8%대의 증가가 예상
 - 2010년 :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증가세 시현
 - 2011년 :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대내외 불안 요인을 감안할 때 전년도 20%대보다는 수치가 하락하지만 신흥국 중심 수출 증가, 민간투자 기대 증가 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으로 투자 여력이 증가 전망

-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 : 2011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이 수출 증가율보다 높아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것 임
 - 2010년 : IMF에 따르면 2010년 세계 교역 증가율은 11.4%로 전망되고, 국내 경상수지는 2010년에 300억 달러 기록 전망
 - 2011년 :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0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여 교역 증가율도 7.0%로 낮아질 것임

○ (시사점) 경제 부문별 성장세가 상이한 가운데 내수 경기 둔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 유지책 지속, 신중한 금리 인상 추진, 재정적 경기 활성화 기능 유지, 수출 다변화 정책 강화, 원화 환율 안정성 제고, 남북 관계 안정화 기반 정착 등이 필요

경제연구본부 임희정(02-2072-6218)

1) 기획재정부, “2011년 경제전망”, 2010년 12월 14일.

2. 부동산 시장, 소강대약(小强大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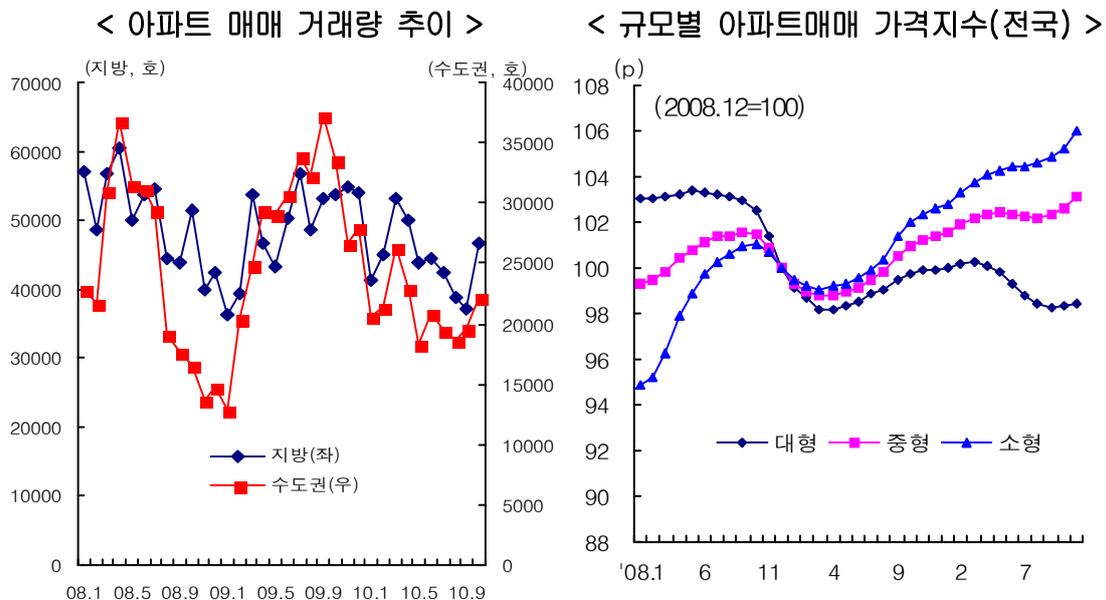
○ (의미) 국내 부동산시장은 시간적·지역별 혼조 속에 규모별 소강대약(小强大弱) 현상이 심화됨

- 2011년 부동산 시장은 시간적으로 지역별로 혼조 양상이 나타남
 - 시간적으로 초반에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의 반전이 가능하겠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부진상태로 돌아갈 가능성
 - 특히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침체에서 회복으로 돌아서겠지만 그동안 호황을 보이던 일부 지방은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
- 하지만 이러한 시간적, 지역별 혼돈과는 관계없이 소형 주택은 강세, 대형 주택은 약세를 의미하는 규모별 소강대약(小强大弱) 현상이 심화
 - 소형 주택은 초과수요로 강세를, 대형 주택은 초과공급으로 약세를 지속

○ (내용) 초반에는 지역별로 상승과 부진 추세가 엇갈리나,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전반적 침체 추세가 대세를 이루면서 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

- (바닥론 소멸) 최근 수도권에서 그동안의 침체 분위기가 열어지면서 '바닥론'이 부상하고 있으나,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
 - 2011년 초반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거래가 증가하고 아파트 급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이 지속되나, 계절적 요인과 지난 8.29 대책의 효과가 뒤늦게 반영된 것에 불과
 - 따라서 2011년 3월 이후 아파트 거래는 겨울 비수기인 2010년 11~12월과 2011년 1월 거래가 반영될 경우 다시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
- (지방강세 약화) 호황세를 보이던 지방의 경우 후반으로 가면서 수요 부진이 확인되면서 다시 침체상태로 반전될 가능성
 - 체감경기 악화 및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수요요인이 크지 않고, 금리마저 호의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침체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
 - 거래부진 속에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전세가의 매매가 상승 한계) 2011년 중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
 - 주택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

- (小強大弱 심화) 하지만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규모별로 소형 아파트 시장은 초과수요 현상이, 대형아파트 시장은 초과공급 현상이 지속될 전망
 - 핵가족화, 저출산 등에 따른 2인 이하 가구 증가, 이혼율 증가와 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 2000년대 주택경기 호황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은 꾸준히 되었으나, 소형주택은 2002년 16.8만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1.4만호 기록
- 이에 따라 2011년 부동산시장은 상대적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하락 추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지방의 소형아파트는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특히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와 현재의 미분양아파트 등을 고려할 경우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상당 기간 침체 상태에 빠질 가능성



자료 : LH공사, KB금융

○ (시사점) 단기적으로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고 거래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小強大弱 트렌드에 맞춰진 부동산대책이 요구됨

-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하여 규모별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현상이 재연되지 않도록 유도
 - 향후 10년 간 예정된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 가운데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 80만 호 공급이라는 목표를 수정 없이 진행

경제연구본부 박덕배(02-2072-6216)

3. 금융위기 트라우마 지속

○ (의미) 경제 회복 기조와 더불어 금융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취약했던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2011년에도 지속

- 자본유출입 규제, 글로벌 금융개혁안 도입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도 환율과 금리의 높은 변동성은 지속되는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지속

○ (내용) 새로운 금융규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지속될 것임

- (자본 유출입 규제 강화) 외국인투자자금의 단기 유출입 확대에 의한 쏠림현상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자본 유출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임

· 정부는 2010년 6월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단기 유출입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제도 개선, 외화대출용제한 강화, 금융기간의 외화유동성 관리강화 등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이미 시행

·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에 대한 과세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도 도입될 계획

· 한편, 2011년 상반기 중 설립 예정인 역내경제감시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를 통해 기존 아시아 금융안전망인 CMI 다자체제(총1,200억불 규모)를 안정화시키고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등이 논의될 것임

* 선물환포지션 한도(전월말 자기자본대비) : (국내은행) 50%, (외은) 250%

*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은 비예금외화부채 잔액(stock)에 부과하는 건전성강화 조치로서 외환·증권 거래시마다 과세하는 거래세(토빈세)와는 차이가 있음

- (글로벌 금융개혁 체제 도입으로 금융규제도 강화) 바젤 III 채택, 대형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체계 도입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규제도 강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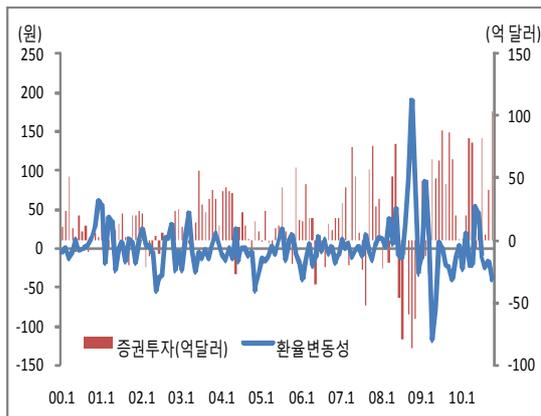
· 금융규제의 근간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마련한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방안(Basel III)이 채택

· 한편, 대마불사(大馬不死)에 대처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SIFI)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도 도입될 예정임

- (높은 환율 변동성은 지속) 주요국 간 환율전쟁이 2011에도 지속될 수 있고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국내 경제의 호조 등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을 높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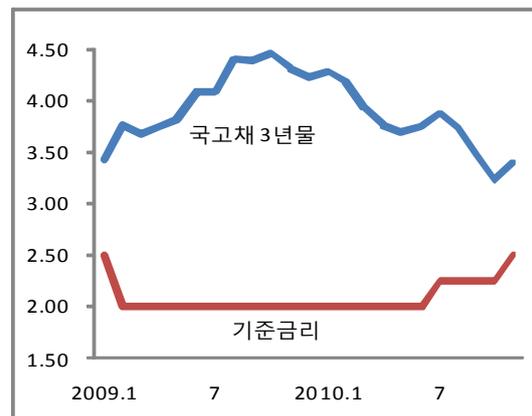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의 2010년 중 최고점대비 최저점의 변동폭은 13.6%로 신흥국 중 매우 높은 수준 → 중국 위안화 3.2%,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5.8%, 러시아 루블화 9.8%
 -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국으로의 민간자금 유입규모가 2011년에도 8,33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환율 변동폭이 커질 수 있음
-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변동성도 확대) 물가 급등과 국내 경기 호조로 인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금리 상승으로 연결되어 변동폭을 키울 것임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시중금리 동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시중금리 상승은 대출이자의 상환부담 가중, 기업의 자금조달 사정 악화 등으로 연결
 - 그러나, 2010년 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0월 중 238억 달러(2009년 연간 234억 달러)에 달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으로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보였고 2011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외국인투자자금 유입과 환율 변동성 추이>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월별 평균자료로 전월대비 증감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국고채 3년물이며 월평균 금리임.

- (시사점) 위기이후 글로벌 금융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와 폭이 결정되어야 하며, 외국 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을 제한하는 정책도 외국인투자자금 급격한 유출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로 조정되어야 함
 - 한편, 강화된 글로벌 금융개혁안이 2011년부터는 국내금융시장에 도입될 것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하락하지 않도록 지도

경제연구본부 조호정(02-2072-6217)

4. 서비스 경쟁력의 신기원

○ (의미) 한·미, 한·EU FTA 발효에 따르는 서비스 시장 개방 대응과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으로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음

- 서비스 시장 개방 : 서비스산업이 크게 발전한 미국과 EU와의 FTA 체결로 국내 서비스 시장이 크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

· 한·EU FTA는 2010년 10월, 한·미 FTA는 2010년 12월 타결됨

-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 :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내수와 수출 간 균형 성장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본격화될 것임

- 이와 같은 대외 여건 변화와 국가 성장 정책의 변화로 2011년은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내용) 제조업 지원 서비스의 도약, 수출 서비스 산업의 부상, 기업의 서비사이징 확장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지원 서비스의 도약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것임

· 디자인 : 산업과 디자인 간 융합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점과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린 디자인에 대한 관심으로 성장 속도가 빠를 전망임

· 컨설팅 : 중소 컨설팅사의 운영난이 가속화되면서 대형화가 진행될 전망이며, 또한 IT 컨설팅사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확대 가능성이 큼

· 광고 : 2011년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의 민영화와 스마트 미디어에 기반한 신규 광고 시장 창출이 예상되어 광고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됨

- 수출 서비스 산업의 부상 :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은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고, 수출 유망 서비스의 수출은 촉진 될 것임

- **경쟁 우위 서비스 해외 시장 확대** :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해운, 건설, 유통 등 서비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유망 서비스 수출 촉진** : 의료, 관광, 문화콘텐츠 등의 서비스산업과 교통카드 및 스크린골프 등 IT 접목 서비스에 대한 수출 지원을 통해 이들 산업의 수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 **기업의 서비스이징 확장** : 제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제품 유인형과 제품 관련 사업 확장형으로 구분되는 서비스이징이 활발해질 것임
 - 제품의 서비스화를 통한 사업 모델 전환으로 제조 기업의 수익을 다변화하기 위한 서비스이징(servicizing : 제조업 서비스업간 융합)이 부상하고 있음
 - **제품 유인형** : 제록스는 복사기와 프린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이지만, 문서 작업에 대한 효율성 컨설팅을 제공하여 제록스 제품 판매를 증대시킴
 - **제품 관련 사업 확장형** : GE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유명하며, 특히 최근에는 단순 의료기기 생산에서 U-Health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함
 - **그린 서비스이징** :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자동차 판매에서 car-shar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과 같은 그린 서비스이징(green servicizing)이 신사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큼
- (시사점)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은 서비스이징을 통해 사업의 고부가가치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정부는 혁신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의 서비스화와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제조 기업은 제품 유인형 또는 제품 관련 사업 확장형 서비스이징을 적극 검토하고, 서비스 기업은 개발 도상국으로의 수출 시장 개척 및 서비스이징 니즈가 있는 제조 기업에 대한 outsourcing을 확대해야 할 것임

산업전략본부 임상수(02-2072-6239)

5. 供進化(Co-evolution)에 따른 신산업 출현

○ (의미) IT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산업 전반의 동반 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남

- IT기술과 주변 산업의 공진화(Co-evolution)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공진화(Co-evolution)는 다른 종의 유전적 변화에 맞대응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종의 유전적 변화라고 정의됨
 - IT기술 발전이 주변 산업에 파급되어 방송, 통신, 인프라 등의 변화를 가져오고, IT 기술의 발전으로 회귀하는 현상
- IT기술 자체가 고도화되면서 TV 등 주변 산업에 IT기술융합이 전방위 확산되면서 주변 기기의 급속한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음
 - 융합을 촉진하는 IT기술 속성에 따라 TV와 인터넷 기술의 결합으로 IPTV 출현, Wi-Fi 기술과 PC의 결합으로 테블릿 PC가 출현
 - 디지털화, 연결성 그리고 디지털화 및 연결을 위한 IT 제반 기술의 특성이 네비게이션, 3D 영상, 원격제어 등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 (내용) IT기술 융합이 일반화되면서 IT인프라 확산, '4T' 산업 도약, 그리고 '스마트 쉬프트화'에 의한 CT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신산업이 출현

- IT 인프라 확산: IT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으로 IT 자체기술 및 IT 융합이 확산되면서 IT 인프라 등에서 신산업의 부상이 기대²⁾
 - IT 융합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IT융합 핵심역량 강화 계획에 따라 2011년 IT 산업 예산이 전년대비 11.3% 증가함
 - IT융합 핵심역량을 확보하고 Giga급 통신환경 등을 구축하면서 IT 인프라 관련 신산업의 부상이 기대됨
 - IT 기술을 바탕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 그리드 등 사회간접자본의 선진화, 녹색기술, 전산업간 융합을 매개하는 등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산업의 부상이 예상

2) 2010년 12월 21일 지식경제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IT 융합 선도국(leader)으로 도약하기 위해 'SW-시스템반도체 동반성장 전략 등 IT융합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IT 산업에 대한 예산은 2010년 대비 11.3% 증가한 1조2,236억원을 투입하고, IT 융합 부문에서는 스마트 TV, LED융합산업, 가상 증강현실산업, Giga급 통신환경 구축을 통한 신시장 창출 전략 등을 추진할 계획.

- 주요대기업의 신성장 주력업종에 대한 투자계획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LED, 태양광, 2차전지 등 업종간 융합기술의 가시적 성과가 첨단융합부문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는 각각 12.8%,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녹색기술, 첨단융합 부문의 투자증가 전망
- **4T 산업의 도약:** U-Health, 녹색성장기반의 확산 등으로 4T(IT, BT, NT, CT) 산업과 연계된 유망 IT융합 신산업이 도약할 것으로 기대
- IT 융합이 진행되면서 IT융합 후방산업인 센서, 레이저 등 부품·장비 산업이 발전하면서 BT·NT 산업이 도약할 것으로 기대
 - U-Health 등에서 요구되는 원격진료·건강관리 서비스는 NT·BT 기술과 IT의 융합·발전을 요구하여 관련 신제품 출시가 예상됨³⁾
 - 또한 '녹색성장기반'의 확산 계획에 따라 CO₂ 배출저감, 포집, 실내공기청정 기술 등으로 NT와 BT산업의 부상이 예상되고 있음⁴⁾
 - 최근 산업의 '스마트 쉬프트화'로 CT 산업의 지속적 발전으로 광고, 유료아이템 및 유료서비스 등 모바일 분야의 수익모델 콘텐츠 산업이 부상
 - 또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 체험형 게임, 3D, 4D 등 가상세계 서비스 분야에서도 CT 산업이 도약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IT융합 산업 육성을 위해서 R&D 기술사업화의 고도화, 경쟁 심화 및 분쟁을 방지하는 법·제도적 기반 등이 필요
- IT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의 활성화 등 지식재산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
 - IT융합 산업의 출현 과정에서 경쟁 심화에 따른 사업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산업전략본부 이원형(02-2072-6233)

3)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융합기술포럼의 U-Health의 발전과 미래전망에 따르면 당수치, 맥박, 혈압 등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환자감시장치(Vital Sign Monitor) 등이 출시되어 Home Health Service의 활성화를 예상.

4) CO₂ 저감을 위한 CO₂ 흡착 기술이 부상하고, 실내유해물질 제거에 필요한 공기청정화, 초미세입자의 계측 및 센서, 세균 제거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 나노 바이오 기술이 동반 발전할 수 있음

6. Green Industry의 신주력산업화

○ (의미) 그린산업이 세계 각국에서 성장 확충과 지속가능한 경제 체질로 재편하는 '디딤돌'로 간주되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 전통적 환경산업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청정기술분야를 포함하는 그린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경제적 비중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 그린 산업의 시장 확대: 우리나라의 그린에너지산업 시장이 '07년 18억 달러(생산기준)에서 '12년 1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그린 산업으로 고용 창출: 한국은 '09년~'13년 기간 동안 최대 14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미국은 그린에너지 산업에서 2012년까지 80만개 창출)
- EU, 미국, 일본, 중국에서 그린산업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
 - EU의 'SET Plan'(2009.9), 미국의 '뉴아폴로 프로그램'(2009.1), 일본의 '신성장전략'(2010.6), 중국의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 등 아젠다 수립
 - 선진국이 '10~'12년간 3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지원하고 있어, 경쟁이 글로벌적으로 확장

○ (내용) 2011년에는 글로벌적인 시장 형성과 투자 집중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움직임이 본격화

-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7대 그린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R&D, 금융 지원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7대 그린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산업, LED 응용, 그린 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 6대 녹색기술산업과 녹색금융산업
 - 그린 R&D 예산을 2010년 2.2조에서 2013년 3.5조원으로 확대
 - 그린산업 벤처 기업의 투자자금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운영 (* 현재 녹색성장펀드로 2,591억원 조성)
- 사업 기반 조성 활동이 확대되는 한편으로 에너지절감제도 시행에 대비한 수요업체의 투자로 시장 형성이 가속화
 -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2015년 수출 400억('09년 46억 달러) 달러의 新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 풍력에 대한 시범단지 조성이 진행

-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부터 수주까지 해외진출 활동에 대한 지원 활동이 활성화
 - 2012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13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 예정에 따라 정부의 유인책 제공이 예상되면서, 에너지 절약 시장은 더욱 확대
-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그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 집행에다가 운영 체제 재편을 추진
 - 삼성: 태양전지, 자동차용전지, LED를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20조 투자, 40억 매출, 3만 4,600명 고용 창출을 목표
 - 현대차: 친환경차 개발에 2조 4,000억을 투자하고, 신사업으로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등 진출
 - LG: 미래 신사업 분야로 수처리, 태양전지, LED, 전기차용배터리 등 선정
 - 현대중공업: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할 그린에너지사업 본부를 신설 (2016년 매출 4조원 목표)
- (시사점)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조기 시장 형성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은 경쟁업체보다 앞선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에 주력
- 정부의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유망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과 인력 등을 집중화하는 전략 실행이 요청
 - 그린산업은 아직 시장형성이 초기 단계이므로 정부 주도의 투자 및 지원 활동이 주도권 확보에 절대 중요
 - 기업은 주력사업의 그린화와 아울러 신성장동력 사업으로서 그린산업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 선점에 주력
 - 글로벌 유망벤처업체의 M&A를 적극 추진하고, 미국·EU와의 FTA 체결을 해외 시장 진출의 호기로 활용
 - 다수의 기업이 동일 사업에 진출하고 있어, 선도 기술 개발로 시장을 조기에 장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산업전략본부 이장균(02-2072-6231)

7.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의 반격

○ (의미) 세계 경제의 미약한 회복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 경쟁 기업들의 반격 등으로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어려움이 전망임

- 세계 경제의 미약한 경기 회복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기업들 간 시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그동안 부진을 겪었던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한국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임

○ (내용) 2011년 선진국들의 반격 형태는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신기술-신사업 시장 선점,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 강화 등이 예상됨

- 선진국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재기: 금융위기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전자 기업들이 최근 실적이 호전되면서 재기에 성공함
 -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부활: 최근 포드의 실적 호조, GM의 뉴욕증시 재상장, 도요타의 흑자 전환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재기에 성공하는 모습임
 - 일본 전자 업계의 재기: 최근 소니 등 일본 전자업체들은 구조조정, 생산 비용 절감 노력 등에 주력하여 흑자 전환을 달성함
-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세계 경제가 제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국과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전망됨
 - 美 크라이슬러, 日 도요타 등은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 제고와 소형차 부문에 대한 공략을 강화할 계획임
 - 특히, 日 도요타는 2011년중 미국의 미시시피 공장 가동 등을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판매 확대를 추진중
 - 일본 전자업체는 엔고에 대응하여 해외 아웃소싱,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신기술-신사업 시장 선점:**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이 고기술, 신사업 영역에서 한국과의 격차를 벌려 나갈 것으로 전망임
 - 미국 및 일본 기업들은 이번 금융위기 기간에도 신기술, 환경, 융합 등의 산업 트렌드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하지 않음
 - 美 GM, 포드의 전기자동차 상용화, 日 닛산의 전기자동차 양산 등 선진국 자동차 업계의 전기자동차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한국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자동차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함
 - 한편, 전자업계에서는 日 파나소닉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할 계획으로 알려짐

-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 강화:**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비관세 장벽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최근 이목을 받고 있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
 - 이는 2011년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임
 - 선진국 정부들의 주된 규제 수단은 반덤핑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환경 규제, 통관 절차 지연 등의 비관세 장벽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기업들은 기술경쟁력 제고와 시장 확대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신기술-신산업 부문에 대한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기업들이 향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및 품질 제고, 신시장 개척 및 선점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여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부문에 대한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산업전략본부 주원(02-2072-6235)

8. 히든 챔피언(세계적 중견기업) 부상

○ (의미)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히든 챔피언(세계적 중견 기업)으로 부상하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경제 체질 개선 :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탈피하여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분배 구조를 개선
 - 한국경제에서 중견기업은 도전의식과 변화주도 능력으로 녹색 산업과 같은 신성장 산업과 IT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
 - 중견기업의 성장은 대기업에 편향되어 있는 자원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제 평등주의를 실현

- 산업구조의 고도화 : 단순 하청 중심의 중소기업이 아닌 고도 기술력을 지닌 중견기업의 증가는 취약한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향아리형 산업구조로 고도화 할 수 있음
 - 대·중소기업 관계가 기술 분업 체계로 전환되는 추세 속에서 단순 하청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R&D 능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의 역할이 증대
 - 부품 소재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일정 규모를 갖춘 중견기업의 육성이 필요

○ (내용) 정부의 '히든 챔피언' 육성 정책, 대기업의 동반성장 전략,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핵심역량 강화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등장이 기대됨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정책 시행 : 정부는 성장잠재력 높은 300개의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World-Class 300' 프로젝트를 가동
 - 히든 챔피언 (세계적 중소·중견기업) 육성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역량을 확보토록 원천기술 R&D, 고급인력 육성,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 중견기업 상시지원체제 구축 : 기업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대응해 스스로 마련한 구조 개선계획에 대해 세제·금융 등 각종 절차·제도상 특례 패키지를 상시적으로 제공

- **대기업 상생전략의 본격화**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자금, 경영 지원을 확대하는 대기업의 동반 성장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삼성물산은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마케팅 및 판매 지원, 해외현지 법인 설립, 원자재 공급을 지원
 - **경영자문 컨설팅** : 한화건설은 경영닥터제를 도입하여 협력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중장기 경영자문 프로그램을 운영
 - **녹색 중견기업 육성** : 수출입은행은 2020년까지 녹색산업 중견기업에 2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그린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

- **중견기업의 자발적 핵심역량 강화** : 중견기업들은 스스로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기업가정신 고취, 사회적 위상 강화 등을 추진
 -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 중견기업이 보유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을 제품화 및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 **기업가 정신의 고취** :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경영자의 야심적인 목표와 이를 추진하는 구성원들의 강한 의지를 고취
 - **중견기업의 사회적 위상 강화** : 중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전문 인력의 고용확대를 추진

- (시사점) 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 지속적인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 중견기업 스스로의 중단 없는 시도가 요구됨
 - 중소기업 역량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제, 금융적 지원과 함께 경영투명성 강화와 기업구조 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산업생태계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점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전문기업이 되겠다는 중견기업 스스로의 중단 없는 노력이 필요함

산업전략본부 김종호(02-2072-6240)

9.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도입

○ (의미) 국제회계기준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가 상장기업에 적용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결회사까지 포함한 가치제고 경영이 요구되는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

-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활동 진전으로 국제적인 단일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IFRS 도입이 파급
 - 2005년부터 도입 의무화한 EU를 비롯해 호주, 중국 등 전세계 120여개국이 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도입 예정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상장사 및 비상장금융사(저축은행등 일부 제외) 등에게 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
- 글로벌 스탠다드인 IFRS 도입으로 한국 업체는 해외 업체와의 비교 및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

○ (내용) IFRS 적용으로 연결대상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실적 집계가 이루어져 외형, 재무구조 등에 기존과 차이가 발생하며, 기준 적용에 대한 해당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

- 외형 규모에 변화: 기존 개별기준(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 기준(연결재무제표)으로 변경되면서 외형에 변화가 발생되어 순위 변동이 초래
 -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이익이 모두 증가하게 됨
 - 연결대상기업을 기존 회계기준에서 정했던 50% 이상의 지분 보유 또는 30% 이상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와 달리 IFRS에서는 50% 이상 보유 또는 실질 지배력이 있는 경우로만 보아 연결대상기업에 변동 발생
 - 이에 따라 외형 규모(매출, 자산)의 변화로 기존의 기업 순위에 변화가 예상되며, IFRS를 적용하고 있는 선진국 기업들과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
- 재무 구조에 변화: 연결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재무 구조의 변동으로 신용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자금 조달 환경에 변화가 예상

- 기존 회계 기준에서는 자회사 가치를 지분법평가손익이라는 이익 항목으로 적용해 왔으나, IFRS에서는 자본 항목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IFRS의 적용은 기존 기준에 의해 평가된 재무구조에 변화를 초래
 - 연결 자회사의 수익성이나 안정성 수준이 모회사에 영향으로 주어 신용등급 등의 변화로 자금 조달 환경이 달라짐
- **회계기준 적용에 자율성과 타당성 강조**: IFRS에서는 기존의 규정중심 회계에서 원칙중심 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업은 적용 원칙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 반면에 그에 합당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뒤따름
- 기존 회계 기준에서는 규정된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강제하지만, IFRS는 원칙 즉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기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기업은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감사인이나 이해관계자를 납득시킬 보편타당한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함
 - 투자자 및 기업분석가 등 제3자들은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는 재무제표의 주석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함
- (*금감원 결과, 주식분량이 기존 회계기준은 45쪽이나 IFRS 77쪽으로 증대)
- **자산의 시가 반영**: IFRS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평가를 강조
- (시사점) **경영 전략 및 관리 범위를 연결대상기업까지 확대하는 'IFRS 경영'이 강조되며,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
- 연결대상기업의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업은 기존의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연결기업' 차원에서 성과 향상과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전략 및 관리를 수행해야 함
 - 그동안 'Korea Discount'로 평가절하되었던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IFRS 도입으로 정당한 가치 평가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

산업전략본부 이장균(02-2072-6231)

10. 한반도 新열강시대

○ (의미) 남북간 긴장이 한반도 주변국으로 확대되어 과거 냉전시절의 동맹국들간의 대결 구도가 재현

- 한·미·일 對 북·중·러 :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남방 3국과 북방 3국의 대립 구도 형성
 -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북 규탄을 주장하는 한·미·일과 성명을 거부하는 북·중·러 사이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
 - 연평도 도발 이후 한반도 인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되었고, 이에 맞대응하는 중국의 군비 증강 및 군사 훈련 실시
 - 북한에 대해 5개 전제조건(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 도발행위 중지, 역내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국제적 의무 준수)을 요구하는 한·미·일과 6자회담 우선 재개를 주장하는 북·중·러 사이의 갈등 심화

○ (내용) 2011년에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북핵 문제의 교착 및 미중간의 갈등 심화 등으로 '한반도 新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전망

- 남북 대결 구도의 지속 : 북한의 선군 노선과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나, 6자회담 재개시 긴장 국면의 돌파구가 될 전망
 - 2011년에도 정부는 방북 제한 조치 등 2010년의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후계 체제 안착을 위해 대남 도발과 위협을 연내 지속적으로 감행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정부는 국방비를 전년대비 6.2% 증액하여 서해상의 전력보강을 추진할 전망이며, 북한도 서해 5도에 대한 위협과 방사포 등의 전진 배치로 맞대응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우려 증대
 - 다만, 6자회담이 연내에 극적으로 재개될 경우, 고조된 남북간 긴장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담 재개시 상황에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의 추진도 예상

- **북한 핵문제 교착** :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는 반면, 한·미·일은 북한의 선제적 핵포기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6자회담은 교착 상태를 지속하게 될 전망
 - 북한은 김정은 후계 체제의 안착과 2012년 강성대국의 건설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전망
 - 한·미·일은 북한의 5개 전제 조건의 해결 없이는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상반기 내에 6자회담 재개는 어려울 전망
 - 6자회담 재개가 난항에 빠진 채 한·미·일의 대북 공세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존재
 - 그러나 '남북유엔동시가입 20주년'을 기념하는 9월 18일을 전후로 남북간 대화의 모색과 함께 6자회담의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

- **미중 갈등 심화** :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보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치·경제적인 면에서의 충돌이 불가피
 - '전진배치외교(forward-deployed diplomacy)'를 표방하며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지역내 패권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갈등 심화
 - 군사적으로 미국은 연내 한국, 일본과 미사일방어체계(MD) 및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은 러시아와 사상 최초로 연합군사훈련 실시 예정
 - 경제적으로 미국은 지난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에 이어, 상원에서 환율제재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미중간의 통상 마찰과 환율 분쟁이 2011년에는 더욱 격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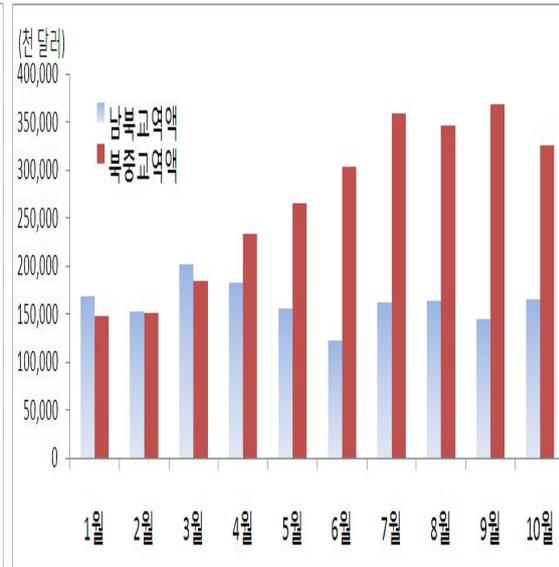
-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 북한은 핵문제 해결 지연과 남북경협 위축을 북중경협 강화를 통해 해소할 것으로 보여 대중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2010년 1~10월 북중교역액은 26억 8,806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2.0% 증가
 - 북중교역은 2009년 26.8억 달러로 전체 교역 대비 52.6%를 차지했으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05년 39.0% → 08년 49.5% → 10년 54.6%)
 - 2010년 두 차례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중간 경제협력 강화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한의 경제적 대중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

<북한의 대외무역액과 북중의존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북한 무역액에는 남북교역액 포함
 2010년 의존도는 전망치

< 2010년 남북 및 북중 교역액 추이 >



자료 : 통일부.

○ (시사점)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다자적인 제도를 통한 동북아 냉전 구도 고착화를 방지

- 연내 6자회담의 재개를 추진함으로써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다자적 협의체를 통해 냉전 구도를 해체
 - 현재 6자회담만이 유일한 한반도의 긴장 해소의 대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남북 관계와는 별도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
 -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다자적 안보협의체'로서 6자회담을 격상하고, G20체제를 통해 미중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
- 또한, 북한의 지나친 대중의존도 심화는 남북경협의 레버리지 약화 및 남북 관계에서의 주도권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함

경제연구본부 이해정 · 최성근(02-2072-6222)

11. 스마트세대의 스마트화

○ (의미) 2011년 한국 사회는 스마트세대가 더욱 부상하여 소비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스마트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을 계기로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세대들은 정해진 틀 속의 피쳐폰(Feature Phone)같았던 기존 세대와 달리 스마트폰처럼 소비 시장이나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스마트화된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내용) 새로운 스마트세대가 등장하고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2011년은 스마트세대에 의한 스마트화가 각 분야에서 활발해질 것임

- (새로운 세대의 등장) 기존 세대와 달리 강요된 스펙이 아닌 자신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에 따라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스마트 세대가 등장하고 있음

· 스마트세대란 외형적으로 서구적 체형을 바탕으로 강인(Strong body)하고, 나만의 스타일(My style)을 고집하지만, 개방적이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open nAtionalism), 실용적인(pRagmatism) 정치 성향을 보이며, 성공을 다양한 방면에서 찾는 가치관(mulTi value)을 지닌 '스마트(SMART)'한 세대임

- (스마트 기기의 진화)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태블릿PC, 스마트TV 등 스마트한 모바일 기기들이 넘쳐나면서 소비나 문화 전반에서 스마트화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 스마트폰으로 시작되어 스마트기기의 열풍이 뜨거웠던 2010년 스마트 기기의 원년에서 2011년 진화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며 특히, 새롭게 스마트TV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⁵⁾

· 스마트폰 국내 사용자도 2010년 11월 현재 626만대를 넘어서 전체의 12%까지 급성장⁶⁾하였으며, 2011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스마트기기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임

5)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전시회인 '소비자 가전쇼'(CES 2011)가 내년 1월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 전 세계 2500여개 업체들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는 스마트TV와 태블릿PC 등 정보기술(IT)이 접목된 융합형 전자기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6)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스마트생활의 일상화)** 스마트기기가 스마트세대의 스마트화를 활성화하면서 스마트 생활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일상화할 것으로 보임
 -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생활밀착형이면서 개인화된 인맥구축서비스(SNS), 위치정보서비스(LBS) 같은 신기술이 계속 진화하면서 일반인들의 일상 생활조차 스마트하게 바꾸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임
 - 일반인들이 이런 스마트한 신기술을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banking 업무 등 일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나 여가 생활의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임

- **(스마트소비의 활성화)** 스마트 쇼퍼로 불리는 스마트해진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소비가 2011년 소비문화를 주도할 것임
 - 스마트 쇼퍼인 이들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제품의 품질에 가치를 두지만, 동시에 자신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 소비를 늘리는 소비 성향을 지녔음
 - 스마트한 소비를 이끌어주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이 등장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는 스마트 소비 경향이 확산될 것임

- **(기업문화의 스마트화)** 스마트세대가 기업으로 진입되면서 이들에 의한 기업문화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질 것임
 - 사회 전반적인 모발일 환경과 아울러 스마트 기기와 함께 성장한 이들의 능력을 업무에 적절하게 결합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모발일 업무 체제 수립 작업이 늘어날 것임
 - 또한 201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스마트워크 체제 구축 의지가 맞물려 집과 사무실의 영역 구분이 무너지는 기업 조직문화의 스마트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임

- **(시사점) 사회전반에 걸쳐 스마트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이나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기업들은 스마트세대의 소비 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미리 개발선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정부는 스마트기기 관련 규제 등의 점검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기기 활성화 노력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일반인들의 스마트해진 일상 생활을 복돋워야 할 것임

산업전략본부 장후석(02-2072-6234)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3/4
미국	0.0	-2.6	-4.9	-0.7	1.6	5.0	2.6	3.7	1.7	2.6
유로 지역	0.5	-4.1	-2.5	-0.1	0.4	0.2	1.7	0.4	1.0	0.4
일본	-1.2	-6.3	-19.9	11.3	-1.2	5.7	2.8	6.8	3.0	4.5
중국	9.6	8.7	6.2	7.9	9.1	10.7	10.5	11.3	10.3	9.6
한국	2.3	0.2	-4.3	-2.2	1.0	6.0	5.9	8.1	7.2	4.4

주: 1)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10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월7일	1월1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3.33	3.30	-0.03%p
	엔/달러	92.93	88.43	81.19	83.26	83.04	-0.22¥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005	1.3127	0.0122\$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675	11,732	57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10,541	10,590	4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59	3.64	0.05%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22.3	1,114.2	-8.1 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2,086.20	2,089.48	3.28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월7일	1월1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88.10	91.34	3.24\$
	Dubai	78.06	73.14	88.80	90.35	93.85	3.50\$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23.94	333.00	9.06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